

대전교육청,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 김지현 기자 | : 승인 2020.03.10 16:36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장기간 다니지 않은 이들로, 만9세 이상부터 만24세 이하까지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되는 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현 기자